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령도업적

리 금 철

오늘 만리마시대를 추동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로서 자기의 전투적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고있는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발전사의 갈피마다에는 붓대중시, 언론중시사상을 일관하게 틀어쥐시고 그 강화발전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여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가슴뜨겁게 깃들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찍부터 혁명과 건설에서 총대와 함께 붓대의 역할을 깊이 통찰하시고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주체적언론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하시였으며 해방후 혁명적출판보도기관들을 창설하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우리의 출판보도물들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김정일선집》증보판 제25권 1페이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령도업적은 무엇보다먼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참답게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출판보도물로서의 면모를 갖춘 새형의 주체의 출판보도물들을 창간하여주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벌써 혁명투쟁에서 혁명적출판물이 노는 역할을 명철하게 통찰하시고 인민대중을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혁명적출판물발간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조직들이 늘어나고 그 대렬이 확대되는 조건에서 광범한 군중에게 사상적인 량식을 줄수 있는 혁명적신문을 발간할것을 발기하시고 몸소 이 사업을 조직지도하시였다. 신문발간에 대한 경험도 없고 인쇄기재도 없었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새날소년동맹열성자들과 백산청년동맹의 핵심들은 100부나 되는 신문을 손으로 써냄으로써 주체17(1928)년 1월 15일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주체형의 혁명적신문인 《새날》이 창간되였다.

《새날》신문이 창간됨으로써 당시 출판물들에서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던 좌우경적이며 사대주의적인 편향들에 종지부를 찍고 주체적립장에 철저히 서서 조선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는 새형의 혁명적출판물, 주체의 신문발간의 시원이 열리게 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를 가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19(1930)년 여름 력사적인 카륜회의이후 《새날》신문창간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혁명로선실현으로 대중을 조직동원할 사명을 지니고 첫 당조직의 사상적대변자의 역할을 수행할수 있는 혁명적출판물인 《불세비크》를 발간하도록 하시였으며 그해 11월 9일에는 회덕현 오가자에서 농민동맹기관잡지인 《농우》를 발간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항일혁명투쟁을 무장투쟁단계에로 발전시키시면서 혁명적출판물발간사업을 더욱 확대강화해나가시였으며 이 과정에 《3.1월간》, 《서광》, 《종소리》, 《철혈》을 비롯한 새로운 혁명적출판물들을 발간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25(1936)년 5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인 조국광복회를 창립하신 이후 그 기관지발행사업을 중요과업으로 제시하시고 이 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백두산밀영에 출판소를 내오고 비서처성원들을 기본으로 편집력량을 꾸려주시였으며 새로 발간하는 조국광복회기관지의 제호를 《3.1월간》으로 제정해주시였다. 주체25(1936)년 12월 1일 백두산근거지에서 창간된 《3.1월간》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동원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려는 조국광복회의 리념달성에 이바지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삼은 대중정치리론잡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어 《서광》, 《종소리》, 《철혈》 등 조선인민혁명군 대내기관지들을 발간하도록 하시여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도록 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간된 《새날》, 《불쇄비크》, 《농우》, 《3.1월간》, 《서광》, 《종소리》, 《철혈》 등 수많은 출판보도물들은 주체적출판보도물의 원형으로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혁명로선을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인민들속에 널리 해설선전하였으며 조선혁명에 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고 항일혁명투쟁의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참으로 커다란 보도선전적, 인식교양적기능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주체적출판보도물의 본보기가 마련되고 혁명적출판보도사업의 빛나는 전통이 창조되었으며 이것은 우리 당의 혁명적출판보도물의 깊고도 억센 력사적뿌리로, 만년초석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새로운 인민적출판보도물들을 창간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당시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출판보도선전에서 방송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4(1945)년 10월 평안남도공산당단체 책임일군들에게 새 민주조선의 중앙방송을 창설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방향과 방도를 일일이 밝혀주시여 주체34(1945)년 10월 14일 중앙방송의 개시를 선포할수 있도록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중앙방송에 이어 당보를 창간하시기 위하여 주체34(1945)년 10월 17일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선전부일군들을 만나시고 력사적인 담화 《당보를 창간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시여 당보창간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이룩하신 혁명적출판보도사업전통을 계승하여 창간된 《정로》는 우리 당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주체의 당기관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보를 창간하신데 이어 당정치리론기관잡지를 창간하는데도 힘을 넣으시여 주체35(1946)년 10월 25일 《근로자》의 창간호를 세상에 내놓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민주조선》, 《로동자신문》, 《농민신문》, 《청년》과 같은 정부 및 사회단체기관지들과 《평북신보》와 같은 지방신문들, 국내외의 정세자료를 종합적으

로 장악하여 출판기관들에 통일적으로 제공해주는 기지로서 북조선통신사를 내오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 있던 낡은 출판보도기관들을 철폐하고 새로운 보도기관들을 먼저 내오는 원칙에서 해방후 불과 4개월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새 조선의 인민적인 출판보도기관들이 수많이 창설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교원신문》, 《교통신문》 등 부문별신문들과 《로동자》, 《조선녀성》을 비롯한 여러 잡지들도 창간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이처럼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후 당보를 중심으로 하는 출판보도체계가 수립되어 우리 당 출판보도물들이 정연한 체계와 질서밑에 발간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주체40(1951)년 10월 15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교양에 이바지하는 잡지를 발간할데 대한 교시를 주시였으며 친히 잡지의 제호를 《정치지식》으로 달아주시였다. 《정치지식》잡지는 주체41(1952)년 4월에 첫호가 발행되였다. 이 시기 신해방지구인민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서 주체41(1952)년 2월 《개성신문》이 창간되였다.

전후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출판보도물은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중요한 수단, 당이 내세운 정치, 경제, 문화건설의 과업실천에로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는 힘있는 무기라고 규정해주시고 그것이 자기의 역할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도록 출판보도기관들을 개건 확장하는 한편 여러 신문들과 잡지, 방송들을 새로 창간 및 창설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수도신문인 《평양신문》과 대중종합잡지인 《천리마》가 창간되였다. 그리고 기자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사명을 지닌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잡지로서 《조선기자》가 창간되었고 평양시복구위원회에서 발간하는 《건설자》,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인 《문학신문》, 《상업신문》, 《체육신문》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별신문들이 새로 나왔으며 철도방송이 창설되였다.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는 벅찬 환경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언제나 출판보도물의 창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여 일찌기 초기혁명활동시기 발간하시였던 우리 나라 첫 혁명적신문인 《새날》의 제호를 그대로 단 《새날》신문을 창간하도록 하시였다. 이 시기 《수산신문》, 《건설신문》, 《인민보건》 등 여러 부문별신문들과 각종 잡지들도 새로 발간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텔레비죤방송을 새로 내오는 사업에도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고 큰출력을 가진 텔레비죤방송국을 건설하고 곳곳에 중계소들을 설치하여 텔레비죤방송의 포괄범위를 넓힐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그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그리하여 주체52(1963)년 3월 3일에는 텔레비죤방송이 창설되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문화교양사업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게 되였다.

1970년대에 이르러 만수대텔레비죤방송통로가 개설되고 천연색텔레비죤방송이 개시되었으며 《통일신보》, 《대학생》을 비롯한 여러 신문, 잡지들도 창간되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당적출판보도물의 창간사업이 줄기차게 진행되어 우리 당 출판보도물들은 정연한 신문, 통신, 방송보도체계를 갖추고 당의 사상과 령도를 앞장에서 관철해나가는 사상적무기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령도업적은 다음으로 우리 당 출판보도물이 당적출판보도물로서의 자기의 성격을 확고히 고수하고 언제나 시대의 선도자, 투쟁하는 대오의 진군나팔수로서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끊임 없이 높여나가도록 이끌어주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당 출판보도물이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사상리론적 지침을 마련해주시어 그것이 언제나 당적출판보도물로서의 성격을 확고히 고수하고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도록 하여주시였다.

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사상을 우리 당 출판보도물건설과 활동에 구현하시어 주체적출판보도사상을 창시하시였다.

항일혁명의 간고한 투쟁속에서 창시된 주체적출판보도사상에는 출판보도물을 혁명투쟁에서 총대와 함께 필수적인 사상적무기로 장악리용할데 대한 문제, 출판보도물을 조선혁명의 당면한 과업수행에 철저히 복종시키며 모든 문제를 조선혁명가의 주견을 가지고 분석평가할데 대한 문제, 출판물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일데 대한 문제, 언제나 등사기를 메고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전투적인 출판물을 만들데 대한 문제, 출판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풀어나갈데 대한 문제 등 중요한 원칙적문제들이 심오히 해명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인민들에게 올바른 투쟁방향을 제때에 알려주고 그들을 새 조국건설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자면 무엇보다도 출판보도물과 같은 위력한 사상적무기가 있어야 한다는것을 깊이 통찰하시고 《새 민주조선의 중앙방송을 창설할데 대하여》, 《당보를 창간할데 대하여》, 《출판보도사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킬데 대하여》, 《신문은 정치의 중요한 무기이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새로 조직된 출판보도기관들의 사명과 임무, 그 편집발행사업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의 그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서울방송국을 장악하고 운영할데 대하여》, 《인민군신문의 편집방향에 대하여》, 《문화선전상과 한 담화》, 《조선중앙통신사 사장과 한 담화》, 《잡지〈군사지식〉편집부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잡지〈정치지식〉을 창간할데 대하여》 등 여러 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신문, 통신, 방송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출판보도물들이 전체 군대와 인민을 투쟁과 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보도선전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도록 보도선전방향과 그 구체적인 내용, 방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후복구건설 및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 그리고 사회주의전면적 건설시기를 비롯한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우리 당 출판보도물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사상리론적지침들을 안겨주시어 언제나 당적출판보도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당 출판보도물이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앞장에서 시대를 선도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몸소 혁명적출판보도물들에 중요한 글들을 수많은 써서 발표하

심으로써 창작활동의 빛나는 본보기를 마련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가물거리는 등잔불밑에서 《새날》신문의 창간호에 널 중요론설과 기사를 쓰시고 혁명조직성원들이 써온 원고를 하나하나 검토완성시켜주시었으며 《농우》잡지를 발간하시면서 수많은 원고를 손수 집필하시어 잡지의 혁명적성격을 비상이 높여주시었다.

《농우》잡지에 내신 논문 《우리들이 나아갈 길》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집필하신 글들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수 있게 알기 쉬운 말로 해설함으로써 대중의 심장을 틀어잡고 그들을 반일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켰다.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도 혁명적출판물발간사업을 끊임없이 줄기차게 밀고나가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출판사업의 방향과 내용, 그 형식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었으며 출판사업을 위한 온갖 조건을 다 마련하여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 유격구와 밀영들에서 전문적인 출판소들을 차려놓고 그 역할을 높여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각계각층 반일군중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혁명적출판물들을 대대적으로 찍어내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문출판일군들과 함께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을 비롯하여 광범한 독자대중도 필자로 인입하여 혁명적출판물들의 대중적성격이 더욱 뚜렷하게 살아나도록 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모든 대원들에게 글을 쓰도록 장려하는것은 그들이 이미 배운 문제를 더 폭넓고 깊이있게 인식하며 그들의 사상리론수준을 빨리 높여주는 좋은 방도로 된다고 가르치시면서 바쁘신 속에서도 유격대원들모두가 글을 쓰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대원들이 쓴 글들은 반침이 틀린 글자도 더러 있고 문맥이 잘 통하지 않는데도 있지만 평범하면서도 친근감을 주는 솔직한 감정으로 씌여졌기때문에 좋다고 하시면서 그 글들을 친히 수정가필하시어 《종소리》에 실을수 있게 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신문과 방송, 통신 등 우리 당 출판보도물이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시대를 선도하고 광범한 대중을 투쟁으로 불려일으키는 사상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새 조국건설시기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당 출판보도물이 건당, 건국, 건군위업의 위력한 사상적무기가 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었다.

당시 출판보도부문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새로 창간된 인민적출판보도물들이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립장에 튼튼히 서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의 리익을 대변하며 건국위업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4(1945)년 12월 출판보도부문 일군협의회에서 하신 연설 《출판보도사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킬데 대하여》에서 출판보도사업에서 근로인민대중의 계급적립장을 철저히 지키고 당이 제시한 새 민주조선건설로선과 시책들을 신속정확히 대중속에 해설선전하며 출판보도선전의 인민성과 대중성을 보장하여 모든 출판물과 방송의 내용과 형식이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에 맞고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수 있게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6(1947)년 5월 29일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하신 결론 《방송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에서 방송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방

송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사상적통일을 강화하며 방송국들의 사업체계를 바로 잡고 방송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방송시설들을 정비보강하고 그 리용률을 높이며 방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출판보도일군들의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때로 그들을 몸 가까이 부르시여 그들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치하도 해주시고 사업에서 나타난 부족점들도 제때에 일깨워주곤 하시면서 새 조국건설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는데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출판보도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시출판물을 포탄과 똑같이 취급하도록 군사위원회 명령과 내각결정도 내리도록 해주셨을뿐아니라 인민군지휘관들이 출판물보급사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직접 명령도 내리시였으며 최고사령부 무전기까지 통신보도사업에 리용하도록 하시여 싸우는 조선의 목소리가 중단없이 세계에 울려 퍼지게 하시였다.

전화의 나날 쌓인 로고를 푸실사이도 없이 당출판물의 집필편집방향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방송선전사업방향도 제시하시여 전후 출판보도선전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전후 우리 당 출판보도체계를 더욱 완벽하게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출판보도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뿌리빼고 출판보도물의 주체성, 당성, 로동계급성과 인민성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남의 나라 신문의 편집형식을 그대로 모방하던 편향이 극복되었으며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기호에 맞지 않는 기사종류들이 사라지고 긍정교양기사를 비롯한 우리 식의 새로운 기사종류들이 련이어 출현하였다.

기자, 편집원들의 취재집필활동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49(1960)년 어느날 몸소 한 기사를 부르시여 《궁벽하던 산촌에 새 생활이 꽃피었다》라고 창성땅에 꽃핀 생활을 반영한 기사의 제목도 달아주시고 기사내용도 밝혀주시는것을 비롯하여 출판보도사업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전면적건설시기에도 혁명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출판보도물의 교양자적, 조직동원자적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모든 출판보도물들에서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로선, 정책을 해설선전하는것을 제일차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모든것을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로 지향시키도록 하시였으며 출판보도물의 내용과 형식을 다양하게 꾸려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특히 이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 방송선전체계를 완비하도록 하며 방송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온 나라에 정연한 출판물보급체계를 세우도록 해주시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출판보도물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여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의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온갖 정력을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모든 출판보도물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데 지향되었고 형식주의의 낡은 틀을 타파하기 위한 출판보도혁명의 거세찬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령도업적은 다음으로 기자, 언론인들을 우리 당 사상전선의 기수들로 훌륭히 키워주신 것이다.

출판보도활동의 직접적담당자는 기자, 언론인들이며 그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는가에 따라 출판보도물의 위력이 강화되는가 강화되지 못하는가가 결정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언론활동의 직접적담당자인 기자, 언론인들의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어 그들이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자기의 역할을 최대한 높여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새 민주조선의 기자들에게 당의 이목구비라는 커다란 믿음을 안겨주시였으며 가렬한 전화의 나날에는 중군기자들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신임장을 가지고 활동할수 있도록 최대의 신임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출판보도사업을 지도하실 때면 기자들을 튼튼히 준비시키는 문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5(1946)년 1월 11일 《자유황해》신문 주필과 하신 담화 《신문은 정치의 중요한 무기이다》, 주체37(1948)년 1월 27일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하신 결론 《도당위원회기관지 편집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주체44(1955)년 2월 25일 《로동신문》 책임주필에게 주신 훈시 《당보편집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기자들의 정치실무적자질과 능력을 높일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은 기자, 언론인들이 충정과 보답으로 삶을 빛내어나갈수 있는 사상정신적원천으로 되었으며 오늘 우리의 기자, 언론인들은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의 전면적공세속에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위력을 비상이 강화해 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기자, 언론인들의 지위를 최상최대의 높이에 올려세워주시였을 뿐아니라 언제나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며 사업과 생활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따듯이 보살펴주시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종소리》주필로 활약하던 최경화동지가 치명상을 입고 전사하였을 때 너무도 가슴아프시어 밤새껏 눈물을 흘리시며 추도사를 쓰시고 흑한속에서 그의 추도식을 엄숙히 거행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도 그를 잊지 못하시어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최경화는 글재주도 뛰어나고 그림도 썩 잘 그리는 보기 드문 재사였다고 뜨겁게 회고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화의 나날에도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의 생활을 념려하시어 그들에게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주체40(1951)년 6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문화선전성의 책임일군을 부르시어 방송일군들의 생활이 어려울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동무들에게 흰쌀을 좀 보내주려고 하였는데 지금은 흰쌀이 들어온것이 없고 좁쌀뿐이니 그것이라도 보내주려고 생각한다, 그

들은 좁쌀이라고 허물하지 않을것이다, 동지적으로 접수하여줄것을 전달하여주시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아버지수령님의 은정어린 좁쌀이 방송일군들에게 전달된 때로부터 며칠후 수령님께서서는 방송일군들에게 좁쌀을 싣고갔던 일군을 다시 부르시여 나는 그 좁쌀을 보내놓고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쩐지 그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전쟁하는 때이니 할수 없는 일이지만 내 마음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게 되었다고 하시며 그 동무들에게 섭섭해하지 말라고 전해줄데 대하여 다시금 말씀하시였다.

기자들의 수고를 언제나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46(1957)년 6월 어느날에는 제2차 전국기자대회에 참석하시여 기자들은 당의 보배들이라고, 기자, 편집원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그들의 요구를 다 풀어줄데 대하여 교시하시였고 1960년대 중엽에는 글쓰는 일이 제일 힘들다고 하시며 기자야간휴양소도 꾸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기자들을 조직적으로 결속시키고 정치사상적으로 교양하는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기자들을 조직적으로 결속시키는 문제를 출판보도사업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북조선기자동맹을 결성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살펴주시였으며 기자동맹이 기자들의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보살피심과 커다란 믿음속에서 우리 당 출판보도사업의 직접적담당자들인 기자들은 정치사상적으로 투철하고 실무적자질이 높은 문필가들로 자신들을 튼튼히 준비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진실한 사랑과 믿음은 가식없는 보답을 낳는 법이다.

수령과 기자, 언론인들이 아버지와 자식의 혈연적관계로 굳게 이어진 붓대사랑의 화원속에서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위력은 나날이 더욱 강화발전되고있다.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은 실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진다.

력사적의의는 우선 우리 당 출판보도물이 혁명적출판보도물로서의 성격과 혁명적출판보도전통을 철저히 고수하면서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주체의 언론, 수령의 언론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게 되었다는데 있다.

력사적의의는 또한 우리 당 출판보도물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에 언제나 활력을 부어주는 사상적무기로서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게 되었다는데 있다.

력사적의의는 또한 출판보도사업의 직접적담당자들인 기자, 언론인들이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됨으로써 당과 수령을 붓대로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전투력있고 힘있는 언론인대오가 마련되었다는데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참담게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출판보도물로서의 면모를 갖춘 주체의 출판보도물들을 창간하여주시고 우리 당 출판보도물이 언제나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확고히 고수하고 시대의 선도자, 투쟁하는 대오의 진군나팔수로서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은 주체적출판보도물의 강화발전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출판보도사상과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자기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비상히 강화하였으며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들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강국의 체모에 맞는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언론으로서의 그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걸음마를 떼고 힘을 키워온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어제 도 오늘도 래일도 변함없이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자기의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며 주체혁명위업실현에 무한히 충실해나갈것이다.

실마리어 령도업적, 출판보도물